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 표지 이콘에 대한 해설은 4면에 있습니다.

입당송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미카예언서 5,1-4ㄱ

화답송 시편 80(79),2ㄱ드르과 3ㄴ드.15-16.18-19 (©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후렴) 하느님저희를 다시일으켜 주소서. 당신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구원 되리이다.

1.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2.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3.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제2독서 히브리서 10,5-10

복음 환호송 루카 1,38

◎ 알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 루카 1,39-45

영성체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주보



2면
박규환 신부님
<강론>



3면
교구 사목지침
해설 마지막편



4면
이콘 읽기 마지막편,
『찬미받으소서』 읽기



6면
교구소식 (본당의 날,
은빛여정 성경 잔치)

대림 제4주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리 교사들)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리 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복됨과 행복의 관계

악마의 재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탐낼만한 천부적 재능이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그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께서서는 출산을 앞둔 엘리사벳을 방문하십니다. 성모님의 방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크나큰 기쁨이었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2.45) 이라 노래합니다.

“복되십니다”와 “행복하십니다”라는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됨은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행복

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고백하듯이 성모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된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거룩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나큰 복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됨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복보다는 불행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모칠고(聖母七苦)를 통해 성모님이 겪으셨던 불행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복됨이 가져다준 불행 속에 낙담하기보다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통해 불행을 행복으로 잘 승화시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인한 잉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성모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ㄷ)라며 말씀에 온전히 당신을 봉헌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셨을 때는 그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성모님께 주어진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라는 영광된 칭호는 단순한 복됨의 결과가 아닌 말씀에 의탁한 노력의 행복된 결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심의 복됨이 만남의 행복으로 그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굳건한 믿음과 노력을 통해 주님 오심의 복됨을 만남이라는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박규환 안젤로 신부
연지성당 주임



성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삶 안에
아기 예수님께서서 탄생하실
구유를 만드는 것.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제) 16:50

12.20(월)~21(화)
박규환 신부(연지성당 주임)
12.22(수)~25(토)
조성윤 신부(삼계성당 부주임)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12.21(화) 13:00~14:00
진행 : 표용운 신부(가야 부주임)
<신의 직장> 출연 : 정철용 신부(우동 부주임), 임영천 헬레나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조운진 비비안나
12.23(목) <퀴즈콩트, 성경에서 온 그대>
출연 : 박명제 신부(부산cpbc 사장), 임정철 신부(남천 제2보좌)



병들어가는 지구를 보살피며 살려냅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15년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누이이며 어머니인 지구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2항)라고 회칙을 시작하십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 회칙에서 ‘지구의 오염과 기후변화, 물과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생태, 환경, 경제와 사회 등의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미 2015년에 이 회칙을 통해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공동의 집인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1세기는 예사롭지 않은 기후 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로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4항: 프란치스코 교황, 환경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찰 ‘우리 어머니인 지구’ p.18) 하지만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례 없는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창궐 5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주교단은 2020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교서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자연을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소비하고 폐기해도 되는 소유물로만 보고 피폐시키고 약탈해온 결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은 ‘지구 생태계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울부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 극한파, 폭염과 지진 등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적된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은 인류에게 커다란 해악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이제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많은 나라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NDC)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0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생태적 회개’는 현시대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생태계와 온전한 지구를 물려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2년을 ‘성체와 말씀의 해’로 지내는 우리는 성찬례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니, 지구와 인류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내가 하는 이 작은 것이 지구와 생태계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합시다. 각자가 하는 작은 것들이 모여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 하나가 큰 강과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구를 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며 앞장서도록 합시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구가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넘쳐나도록 합시다.

■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하심



엘리사벳의 흰 머리색과 얼굴의 주름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위치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한 나이의 엘리사벳의 임신이 주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임을 상징한다.

나이 든 사촌언니의 해산을 위해 방문한 동생 마리아를 반갑게 맞는 엘리사벳의 두 손은 마리아를 감싸 안고 있으나 조심스럽게 표현되어있다. 이는 마리아의 방문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음과 동시에 마리아가 지존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표현은 예수님의 잉태로 인하여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므로 존경의 표현이다.

마리아의 뒤로 초록 잎이 무성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는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와 엘리사벳의 요한 잉태를 상징한다. 나무의 크기로 상징되는 의미는 비록 엘리사벳이 언니이며 세례자 요한을 먼저 출산하지만 존재로서의 큰 사람



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일반적인 이콘에서는 태중의 아기를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이 이콘에서는 마리아 태중의 예수님과 엘리사벳 태중의 세례자 요한의 태아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타원형은 자궁을 상징하며 ‘옥좌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기도 한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향해 강복의 손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



올해 성탄도 코로나로 인해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이 불안한 현세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믿는 마음으로 두배 세배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보에서 이콘과 해설을 통해 부산교구 신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희망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이콘 작업 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 인 속 안젤라
‘그리스도의 빛’ 이콘스튜디오 대표 angela0917@hanmail.net

이 인 속 안젤라

‘그리스도의 빛’ 이콘스튜디오 대표 angela0917@hanmail.net



공동의 집
들보기

동일한 관심을 통한 일치

9.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께서는 환경 문제의 윤리적 영적 근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증상만을 다루게 됩니다. 총대주교께서는 우리가 소비 대신 희생을, 탐욕 대신 관용을, 낭비 대신 나눔의 정신을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금욕주의로 실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는 사랑의 방법, 점차로 내가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는 공포와

욕망과 충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느님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방법인 친교의 성사로 받아들여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하느님 창조의 흠 없는 외투의 가장 작은 부분, 나아가 우리 지구의 가장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도 서로 만나게 된다고 겸손하게 확신합니다.”

『찬미받으소서』 7항~9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7항~9항 영상 보기

낭독 : 선교분과수녀연합회 안현주 루도비카 수녀



일회용 생수 NO! 개인 물통 YES!





스무 살 가장

여섯 살 때부터 민성(가명, 만 19세)이는 동생 지성(가명, 만 16세)이와 함께 친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사업을 실패한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두 아들을 모친에게 떠넘기고 서울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손에 맡겨진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마저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에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어렵게 홀로 살아가던 할머니는 갑작스레 손자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민성이는 본당 앞마당을 집처럼 여기며 자라왔고, 주일학교 간식을 받으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할머니에게 드릴 만큼 속이 깊었습니다.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민성이는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내신 1~2등급을 유지할 만큼 공부를 잘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품었지만, 고가의 장비와 학원비를 지금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가고자 했던 대학교와 학과가 아닌 취직이

잘 되는 과가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그마저도 성당과 주변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할머니가 작년에 치매 판정을 받음으로써, 15년간 손자들을 돌보아 왔던 할머니는 돌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지만, 얼마 전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두 손자를 남겨두고 선종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었던 두 형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민성이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이러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창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했던 민성이는 벌써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년엔 입대를 생각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인 동생을 홀로 남겨둘 수가

없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신청해 보려 합니다.

민성이와 지성이는 어릴 적부터 두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방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다 보니 우애가 깊어졌습니다. 이제 두 형제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될 것입니다.

스무 살이라는 나이에 동생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민성이가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동생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성체와 말씀의 해’를 맞이하여 ‘말씀과 함께’의 실천 사항 <한 주간의 성경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를 위한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간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루카 1,42)

[나만의 성구]

절취선



교구
소식

은빛여정 성경 잔치

“코로나!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으로 함께하여 완성한 성경 필사, 신앙체험수기, 나만의 성경 구절과 십계명, 미술작품(색종이 아트, 창세기 병풍) 등 다채로운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

선교사목국 주관(국장: 이장환 신부)으로 ‘은빛여정 성경 잔치(전시)’가 지난 11월 30일(화) 15개 본당의 노인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남천성당 1층 만남의 장에서 있었다.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전시는 노인대학 어르신과 봉사자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2년 동안 비대면

다. 은빛여정을 담당한 육숙경 요비타 수녀는 “코로나19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의 열정의 결과”라며 “다음해에도 말씀의 기쁨을 밖으로 꺼내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1.7(금) 14:00 주교좌 남천성당 주례 :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코로나19 관계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 가능합니다. 유튜브(가톨릭라이프부산,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및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니, 방송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교 구

교구청 직원(사무직)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 자기소개서, 본당신부추천서, 자격증 사본 / 자격 : PC(한글, 엑셀) 사용가능자 접수 : 12.22(수)까지 / 문의 : 629-8733(관리국)

부산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내용 : 스튜디오웨딩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특전 : ① 커플당 286만원 할인 ② One Stop 결혼 및 혼인 준비 문의 : 441-3500, catholicwedding.kr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범일

12월 5일(일)
주임 : 윤용선 신부, 회장 : 이순호 그레고리오



방어진

12월 5일(일)
주임 : 김종규 신부, 회장 : 김주찬 프란치스코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4.12.21.
이갑수(가브리엘)
주교님



1961.12.22.
김명제(베드로)
신부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6일~12월 12일]

소계 : 2,210,000원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재속회 500,000 명지셋별Pr. 10,000 이연탁 1,000,000 기정민 100,000
고속라 300,000 김수영 100,000 장영자 100,000 김희진 30,000 김정호 50,000 박가나 20,000

누계 : 931,357,552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전주교부산교구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오두종성형외과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오한) 805-0200 카톡상담 ID :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주디스대학 맞은편 우리은행 5층	바티카노 성물, 전례용품 전문점 디자인 목주반지(금, 은) 517-4224 010-5488-4224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앞	해월씨에스의원 암요양·고주파치료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원장. 한 창 순(마리아) 710-7090 해운대구 달맞이길 227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상담 010-5616-8600	제주도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제반 분야 각종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정 민 (가브리엘) 513-3493, 010-9594-2360 부산지방법원(거제동) 맞은편 서정빌딩 7층	준요양병원 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 준 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 동래구 인락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	안락성모안과 백내장 / 노안수술 / 안종합검사 광범변성, 녹내장, 드림렌즈 원장. 장 현 덕 (바오로) 상담문의 525-5656 안락로타리 부산은행 4층(충렬사역 2번출구)	덕천 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박 우 일(요셉) 331-8888,8899 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바게트 건물 6층	이상열마취통증의학과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지하철 1호선 구서역 1번출구 앞 원장/전문 의 이상 열(베드로) 516-0888

괴정성당 성가대 반주자 구함

서류 : 이력서, 본당신부추천서
문의 : 207-3977(사무실)
010-9289-6225(전례분과위원장)

안락성당 성가대 지휘자 구함

문의 : 526-4210(사무실)
010-3842-9279(성가대 단장)

남천성당 미화원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또는 등본
비신자 가능 / 문의 : 623-4528

기관·제 단체·위원회

시각장애인선교회(큰빛) 후원회 미사

· 12.20(월) 11:00 · 선교회 3층 성전
문의 : 464-3909(시각선교회)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회 미사

· 12.21(화) 14:00 · 가톨릭센터 6층 경당
주례 : 김현 신부 / 문의 : 464-2707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2.21(화) 매일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 윤명기 신부 / 문의 : 010-8879-2376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문의 : 462-0334(평일 14:00~17:00)

음악교육원 제29회 겨울음악학교 취소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22. 1. 21. 예정되었던 겨울음악학교를 무기한 연기합니다.
문의 : 519-0474, www.bcmusic.or.kr

성령새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 기도회
· 12.22(수) 13:00~15:00
-금요 밤미사
· 12.24(금) 휴회합니다
-젊은이 기도회
부산 : 매월 2·4주(월) 19:30 전포성당
울산 : 매월 1·3주(수) 20:00 대리구 별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 계약직원 구함

자격 : 컴퓨터 활용 가능자
제출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접수 : 1.3(월)까지 / 접수방법 : 메일(mihee@cup.ac.kr) 또는 우편접수(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킨 4층 403호)
문의 : 510-0507~8, Fax 510-0509

교육·모집·기타

마리아 학교 온라인 수강자 모집

내용 : 구원역사속의 성모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준실시간 수업 : 1.5~6.29 매주 수 14:00~16:00
(저녁반) 1.4~ 매주 화 20:00~22:00
회비 : 16만원(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 성심) / 문의 : 010-9620-4820(서울마리아학교)

22년도 국약성가반주장구 수강생 모집

· 매월 세번째 토요일(월1회) · 대연성당 강당
개강 : 1.15(토) 13:00~16:00
강사 : 강수근 신부, 송민영 선생
문의 : 010-2279-0255, (02)558-2004
(국약성가연구소)

헬렌의집 직원 구함

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제출 : 12.28(화)까지
문의 : 852-1055 /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 1만원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문의 : (02)2274-1843~4, www.cdcc.co.kr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송년피정 : 12.29(수)~31(금)
성경완독 : 1.5(수)~13(목)
말씀피정 : 1.28(금)~30(일)
문의 : 010-3340-0201(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연말연시피정 : 12.30~1.2
눈꽃산행피정 : 1.8~10, 1.21~23, 1.28~30, 2.6~9, 2.12~14, 2.19~22, 2.26~28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3.6~8, 3.17~19, 3.26~28, 3.30~4.1, 4.4~6, 4.10~12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로운 '쉽'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 (02)773-1455, (064)796-4182

대구가톨릭대학교 2022학년도 정시모집

모집인원 : 정시 249명 + 수시이월인원
[가군] 유스티노자유대학(전면 원격수업 진행)
- 복지서비스학과/상담심리학과/경찰탐정학과/부동산경영학과 : 학생부교과 선발(고교 졸업/검정고시 출신, 수능 미반영)
[나군, 다군] 단과대학 통합선발(희망학과 우선선택)
다양한 장학금 · 학생복지혜택
입학상담 : (053)850-2580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2학년도 정시모집

모집학과 :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원서접수 : 12.30(목)~1.3(일)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입사 가능
문의 : (043)270-0100~0102

양업교와 함께하는 행복한 겨울 캠프

· 1.7(금)~9(일) · 양업고등학교
대상 : 중학교 1~2학년 / 비용 : 15만원
접수 : 12.27(일)부터 선착순(양업교 홈페이지)
문의 : (043)260-5078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12.30(목) ~ 2022.1.3(일)
- 모집학과 :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 문의사항 : 입학처(510-0702~8, 0804~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psi.cup.ac.kr)참조

부산성모병원

도수치료실 운영중

전문 물리치료사의 맞춤 치료로 지속적인 치료 제공

부산성모병원TV 정형외과 심형남 과장

"회전근개파열,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 933-7855(정형외과)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토, 일, 공휴일 : 11, 13, 15, 17시

051.441.3500 catholicwedding.kr

스드메 특전 제공(2020.11.~)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백천피부과의원</p> <p>(구) 괴정동 백천피부과</p> <p>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파)</p> <p>758-1100 지하철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주름개선</p>	<p>수맥연구소 제153차</p> <p>5주교육과정 무료진행 "수맥파, 아는만큼 피할 수 있습니다." 31년 경력, KBS아침마당 출연 문의 517-3233 서순복(별바바) 010-3862-6834</p>	<p>동의의료원 무릎관절센터</p> <p>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 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 (토마스) 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p>	<p>바름내과의원</p> <p>소화기/간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건강보험공단 지정점진기관</p> <p>내과전문의 2명 문재현, 박기태(메트로) 지하철역 온천장역 1번 출구 150m 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p>	<p>밝은수안과</p> <p>노안/백내장 수술전문, 안구건조증, 녹내장, 안종합검진 대표원장. 박찬수(스테파노)</p> <p>808-1010</p> <p>서면롯데백화점 정문 맞은편 SS메디칼빌딩 8.9층</p>
<p>모니카주단·한복</p> <p>혼수예단, 결혼예복, 한복대여 김필분(모니카), 황지은(마리아)</p> <p>645-5127, 010-3553-5127</p> <p>부산진시가지 1층 주단부 151, 152호(1층 4호분 중간)</p>	<p>도로연수</p> <p>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 전문강사 : 김정근 (바실리오)</p> <p>010-6555-8655</p> <p>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p>	<p>수요양병원</p> <p>노인성질환/재활/암요양 이사. 오세문(베드로)</p> <p>상담문의. 750-7003</p> <p>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1 (양정동)</p>	<p>바른성모안과</p> <p>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장. 최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p> <p>242-0075</p> <p>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p>	<p>독일보청기</p> <p>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무나(클라라) *교우 특별 할인*</p> <p>803-5588, 1871</p> <p>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중, 빨간역 간판)</p>